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나의 달란트 어떻게 쓸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저렇게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지? 왜 하느님은 불공평하실까 원망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하나밖에 받지 못한 종이 꼭 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 것일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이번에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구슬 열 개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받은 구슬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색깔의 구슬이 여러 개였으며, 따라서 못 가진 색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의 색깔에 따라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 종들은 서로 가진 구슬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받은 구슬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슬에 원하는 색깔을 칠해 봤지만, 원하는 색과 같은 구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색깔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없었으므로 모두는 서로를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차츰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지 않은 색깔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기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외아들이 찾아와서 행복하고 편리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구슬을 몽땅 내어놓고 합동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에 누구나 그 구슬을 사용하면 됩니다. 종들은 모두가 좋다고 찬동을 하고 각자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종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며 다 내어놓지 않고 모두들 한두 개씩 감추었습니다. 모두들 자기는 감추지 않은 양 다른 사람이 다 내어놓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소질과 재능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또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하고, 과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수의 구슬을 주었습니다. 무조건 자기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색깔의 구슬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 구슬의 색깔에 따라 능력을 발견하고 길러서, 그 능력으로 돈도 벌고 삶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자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사용할 때에, 비로소 전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감추어놓고 자기만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각박해지고 결국 자기도, 남도 똑같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같이 나누면 같이 행복해짐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용민 리노 신부 | 평거동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잠언 31,10-13.19-20.30-31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1테살 5,1-6
복 음	마태 25,14-30 또는 25,14-15.19-21

주일 전례

뱀의 유혹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우리는 에덴동산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동산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 2,9에서 주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무는 고대 근동의 유물들에 자주 등장하는 문양이며, 그리스-로마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호 동물들이나 신들이 이 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동산에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나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곧 이 동산에 사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옆에 서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 먹을 경우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를 죽음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여자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건드리지도 말고 따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하자 뱀은 하느님의 명령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열매를 금지하신 이유가 사람이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될까 봐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에 따르면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시는 분 같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자 그 열매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웠고, 슬기롭게 해 줄 것 같았으며,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대로 이 열매를 따 먹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 동시에 하느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금하시고, 당신처럼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곁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뱀의 말에 동의한 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의도를 의심하였고, 그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간을 유혹한 짐승이 뱀일까요? 이 이야기는 왜 인간이 뱀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민담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 민담을 바탕으로 신학적으로 각색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신화에서 뱀은 영적인 지혜와 생명, 치유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의 신인 엔키는 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가릿의 여신인 아스타르테도 뱀과 함께 묘사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을 유혹한 존재로 고대 근동 신화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뱀을 선택함으로써 고대 근동의 지혜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담긴 토라보다는 다른 지역의 문화나 가르침에 이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지혜는 인간을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유혹자로서 뱀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느님의 명령의 동기를 의심한 아담과 하와는 과연 뱀의 말대로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읽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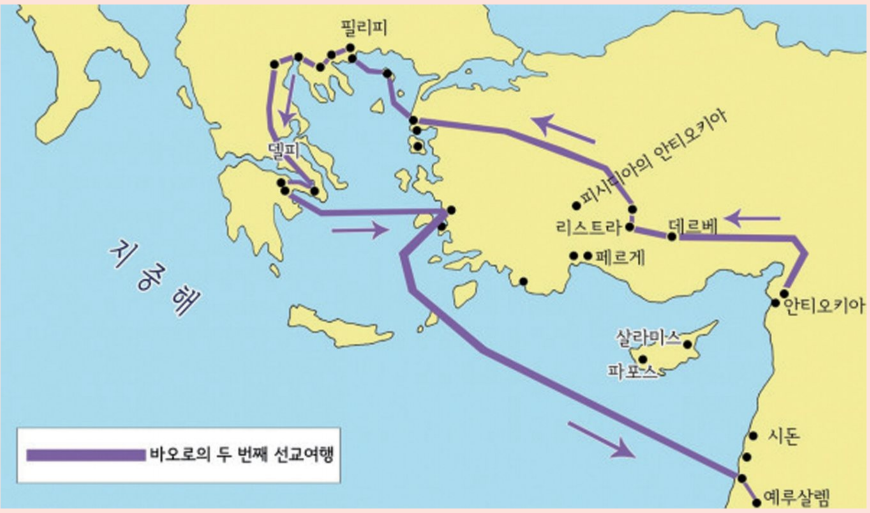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2차 전도여행 출발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 바오로는 두 번째 선교여행(15,36-18,22)을 떠납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의 동반 문제로 심한 언쟁이 벌어집니다. 앞선 여행 때 마르코가 전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사도 13,13) 바오로가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갈라져 각각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다툼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덕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여행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오로는 실라스를 동행하여 앞선 여행 때 전교한 바 있는 시리아, 킬리키아 지방의 여러 교회와 데르베와 리스트라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티모테오를 뽑아 동역자로 삼습니다(16,1-3).

그런데 바오로는 프리기아를 거쳐 오늘날 터키 수도 앙카라 주변 갈라티아 지방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병을 앓아 여행을 중단하고 요양하게 됩니다. 사도 16,5-6은 이를 두고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혹은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어찌 되었건 바오로는 이 병이 계기가 되어 갈라티아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갈라 4,13-15), 부정적인 분열과 질병 역시 당신의 일을 위한 계기로 삼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 하느님의 일은 참 오묘한 듯합니다.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여행 경로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그리스 지방의 전교

바오로는 트로아스에 이르러(16,8-10), 밤에 계시를 받은 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필리피,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서 필리피 교회는 바오로가 유럽 대륙에 세운 첫 교회로 바오로가 가장 사랑한 교회였으며, 바오로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유일무이한 교회였습니다(필리 4,15-16). 또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테살로니카의 교회는 바오로가 세 안식일 동안 설교를 하며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짧은 전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믿음만큼은 너무 대단하여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극찬할 정도였습니다(1테살 1,2-10).

바오로는 베로이아에 교회를 세운 뒤 철학자들의 도시이자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로 내려가는데, 그곳 사람들은 바오로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큰 실망을 하게 된 바오로는(1코린 2,3) 음탕한 도시의 대명사인 코린토로 내려가 18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문란한 도시에서 바오로는 제법 큰 성공을 거둡니다(18,1-17). 여기서도 지혜로운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코린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하느님의 오묘함을 보게 됩니다(1코린 1,18-31 참조). 이곳 코린토에서 바오로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여겨지는 테살로니카 1서를 저술합니다. 이후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안티오키아로 돌아옵니다(18,18-22).

지평과 초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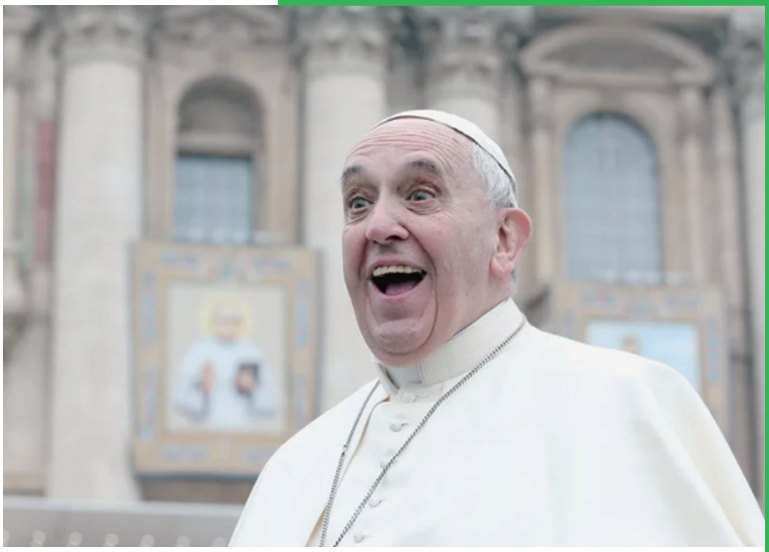
모든 자매형제들Fratelli Tutti, 시인詩人이 되십시오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프란치스코 교종의 새 회칙「프라텔리 투티Fratelli Tutti」를 읽었다. 어쩐지 이번 회칙 만큼은 누군가와 함께 읽고 싶어서, 친구 수녀님이 만든 온라인 읽기 모음에 나도 숟가락을 얹었다. 사는 지역도 하는 일도 종단도 다르고 이전에 서로 한 공간에서 만나본 적도 없는 자매형제들이 교종의 시의적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글을 함께 읽는 것은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전 회칙들을 읽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이런 작은 공동체를 오히려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이 제한된 상황 아래서 만들게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신선하고 행복하다. 한국어 번역이 출판되면 마산교구의 신자들도 꼭 누군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다. 본당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작은 읽기 모임을 만드는 일도 시도해 봄직하겠다.

회칙의 제목「프라텔리 투티」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들에게 남긴 28가지 권고(Ammonizioni)를 인용한 것이다. 성인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가인 '태양의 찬가' 후렴구에서 제목을 빌어온 교종의 지난 회칙「찬미 받으소서Laudato Si」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칙에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교종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모든 형제들'로 번역되기 때문에, 회칙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성차별적 명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맥락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어로 옮길 때는 '모든 형제들'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 혹은 '모든 자매형제들'로 표기하는 것이 회칙의 메시지를 더 잘 반영하는 번역이 아닐까 싶다. 한국어판 공식 번역이 이렇게 출판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칙을 인용하거나 읽을 때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모든 형제자매들, 자매형제들'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회칙에 담긴 아름다운 내용이 잘 알려지기도 전에 제목 때문에 마치 여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나.

총 287개 항으로 구성된 회칙은 8장으로 나뉘어 있다. 회칙의 목적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리적 논박이 아니라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호소임을 교종은 서론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사회 현실에 대한 교종의 날카롭고 타협 없는 인식,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개인주의 문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찬미 받으소서」보다 더 분명하다. 한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비유적 단어 선택, 절절하고 가슴 아프게 느껴질 만큼 감성적인 문체는 자연스레 기도를 불러오기도 한다. 각 장의 제목만 보더라도 세상을 향한 교종의 희망과 바램을 확연하게 읽을 수 있다. "닫힌 세상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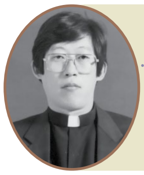

사진출처: Getty Images

아래 우리는 "길 위의 이방인"(2장)을 만나고 그에게 손을 내밀며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불러일으키"고 (3장), "전 세계의 열린 마음"(4장)들과 연대해야 한다. "더 나은 종류의 정치"(제5장)", 그리고 "사회 속의 대화와 우정"(제6장)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만남의 길"(제7장)을 닦아야 하며, 이렇게 "형제자매애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제8장)가 진정한 종교다.

이미 회칙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우선, 이번 회칙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언급이 무려 66번 등장한다. 교종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근본적인" "침해될 수 없는" "초월적인" 등의 형용사로 존엄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경제정책과 정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념과 이득이 아닌 인간을 섬겨야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부여된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권리에는 국경이 없기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 배제될 수 없다(121항). 난민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정서, 정책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는 데 주저함을 보이는 국가와 종교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39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말과 행위는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타인의 행복을 그저 추상적으로 염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연대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외교 정책에 모두를 포함하는 –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115항).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의 가장 첨예한 이슈인 차별 금지법 논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교종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교리에 앞서 사람이 있다. 모든 행동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집"을 만들어야 한다(230~232항).

사람과 사람, 국경과 국경의 사이를 가르는"장벽들"(walls)에 대한 언급 또한 14번이나 등장한다. 교종은 이 "장벽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공포와 외로움이 "범죄조직"(mafia)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27~28항), 이 "범죄조직"은 은유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거짓된 정보로 판단을 흐리고, 대중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 집단과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의존성만을 극대화하는 정치와 종교는 마피아적인 정치와 종교다. 그리고 이 마피아적인 정치와 종교가 현실화한 것이 불온한 포퓰리즘이며,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계획과 권력 유지를 위해 이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저급한 언론은 또한 인간의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최악의 상황만을 강조하여 포퓰리즘을 뒷받침한다. 마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는 듯하다. 교종은 이러한 장벽의 문화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77항). 타자들을 향한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이러한 장벽 문화를 바꾸어 사회에 만연한 "잔혹함, 불안, 절박함"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하는 "어둠 속의 별"이다(222~224항). "사랑은 다리를 놓으며, 인간은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88항)

단 한 번 언급되었을 뿐이지만, 내가 회칙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표현이 있다. 169항에 나오는 "사회적 시인詩人"이란 표현으로, 교종이 신자유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등장한다. 주류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표현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대중운동이 요구되는데, 이 운동의 과제를 교종은 "시인"과 같은 것이라 말한다. 마치 시인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깊고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고 언어를 입히고 다듬고 매만져 세상으로 건져 올리듯, 대중운동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희망을 보고 그 희망에 목소리와 몸을 입힌다. 시인의 시선으로 그 미세한 희망들을 향할 때, 별 볼일 없다 가능성 없다 미리 판단하지 않고 따사로운 눈길을 줄 때, 그 작은 것들은 생명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운동이 된다. 시인의 눈으로 생명을 보라는, 그 생명을 살게 하라는, 이 따뜻한 표현, "사회적 시인"에 나는 한참을 머무르며 기도했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한주(마르코) 신부
2001년 11월 21일

교구장 동정

추계 사제 총회

일시: 11월 17일(화)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제주교구 제5대 교구장 착좌식

일시: 11월 22일(주일) 14:00
장소: 이시돌 삼위일체대성당

견진성사

일시: 11월 18일(수)
장소: 신안동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일시: 11월 22일(주일)
장소: 석전동성당
집전: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본당사목방문

일시: 11월 19일(목)
본당: 북신동/ 대건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1월 기도 모임

일시: 11월 16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1월 18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ME 쇄신주말(21차)

일시: 12월 5일(토)~6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ME 주말을 체험한 모든 부부(여러 번 수강 가능)
신청: 11월 28일(토)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6일(월)~2021년 2월 10일(수) (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2월 5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1년 1월 9일(토)~10일(주일)
대상: 초6, 중1
문의: 경북 영천시 산자연중학교 054·338·053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 21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AV Team Enjoy your life ㈜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제주성지 6곳 순환버스 매일운행
※ 한국성지 167완주 연중 모집
12/9~12 안동·대구대교구 출발
2021. 1/25~28 부산·마산교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5034.8052(정상훈 미카엘)

더편한요양병원
수술 후 재활, 암요양, 교통사고 입원
장기요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PALBO FOOD 40년 전통〈팔보효소〉
효소단식 · 해독요법
▶ 미·중국 수출 ▶ 부모님 건강 선물
▶ 간혈적단식 ▶ 면역력증강 ▶ 효소피정
▶ 지리산 산청 발효·OEM 전문·소화효소
www.palbo.co.kr ☎1600-0830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대건본당 제20대 사목협의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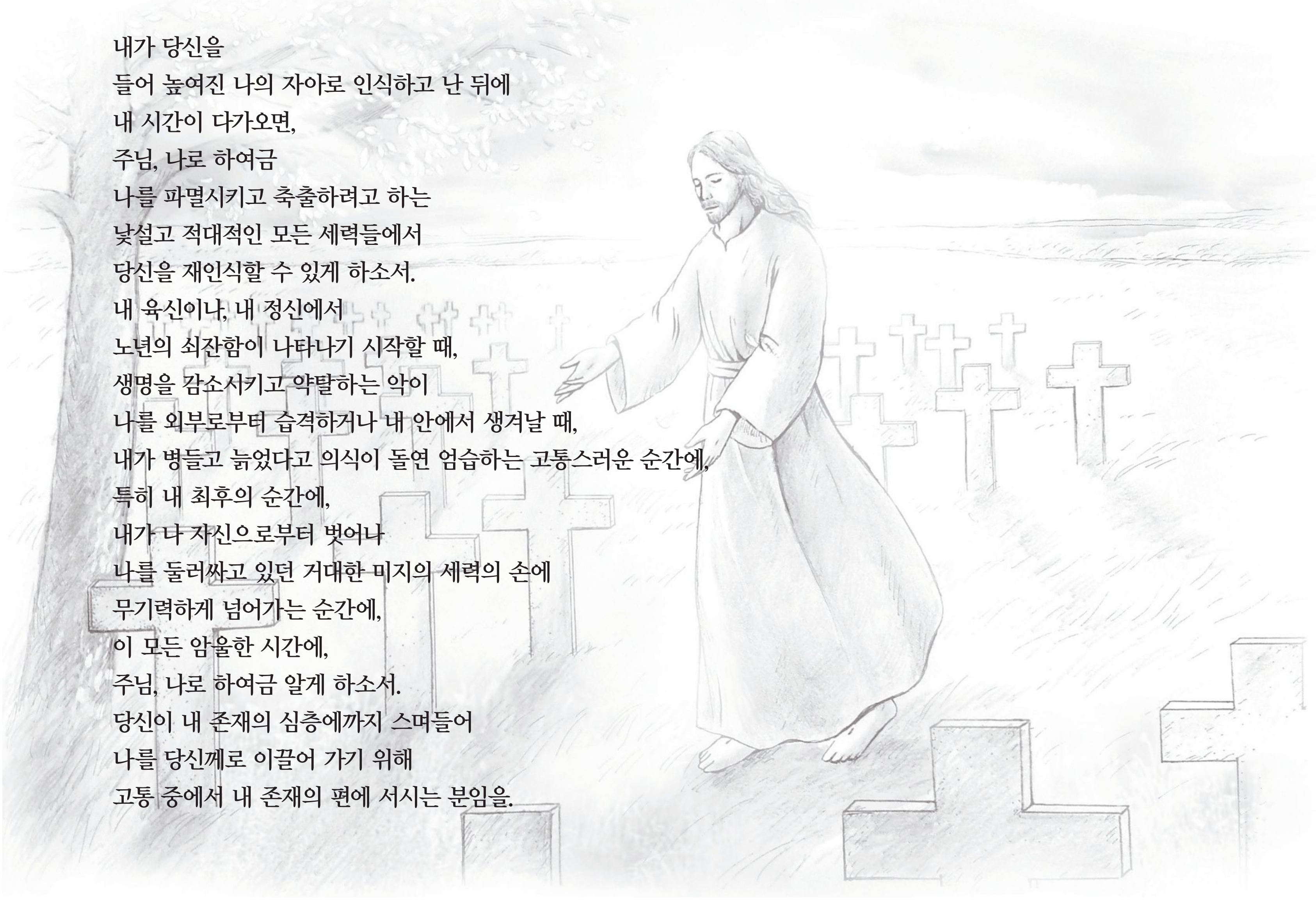
사목협의회장: 강윤희(요한)
사목협의부회장(남성): 김영협(라파엘)
사목협의부회장(여성): 문수희(세실리아)
총무분과위원장: 김강주(안드레아)
재경분과위원장: 최경희(베로니카)
전례분과위원장: 오경숙(가타리나)
복음화분과위원장: 김강주(안드레아)
가정·교육분과위원장: 정복희(루치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정옥(데레사)
지역분과위원장: 문순전(세라피나)
시설분과위원장: 이종성(시몬)
청소년분과위원장: 이미경(스테파니아)
초등부 대표교사: 이수경(아가다)
중고등부 대표교사: 서은아(안나)

교구 가톨릭미술가협회 제24회 정기전

기간: 11월 18일(수)~24일(화)까지
오픈식: 11월 18일(수) 17:00
장소: 마산 3.15아트센터
▶신입회원 모집
대상: 미술작업을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사무국장 010·9600·7994

위령 성월을 보내며 먼저 가신 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끝으로 떼이야르 드 샤르댕의 '선종을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당신을
들어 높여진 나의 자아로 인식하고 난 뒤에
내 시간이 다가오면,
주님, 나로 하여금
나를 파멸시키고 축출하려고 하는
낯설고 적대적인 모든 세력들에서
당신을 재인식할 수 있게 하소서.
내 육신이나, 내 정신에서
노년의 쇠잔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생명을 감소시키고 약탈하는 악이
나를 외부로부터 습격하거나 내 안에서 생겨날 때,
내가 병들고 늙었다고 의식이 돌연 엄습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특히 내 최후의 순간에,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미지의 세력의 손에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 모든 암울한 시간에,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내 존재의 심층에까지 스며들어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
고통 중에서 내 존재의 편에 서시는 분임을.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원고는 이번호로 마칩니다.
집필해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상에서 다가올 천국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추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나뭇잎들로 덮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으며 끝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11월이 되면 몇 년 전 시성되신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을 기념합니다. 돌아가신 지 110년이나 지난 후에 시성되셨지만, 성녀의 글들을 보면 현시대에 적절한 말씀들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온통 소음에 가득 차 침묵이 사라진 21세기의 세상에 던져주는 큰 울림을 우리 모두 깊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은 침묵의 성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침묵을 사랑했으며, 창조된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 하느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무름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편지에서 “하느님께서는 벌써 지금부터 영혼에게 당신을 주시며, 영혼 안에 줄곧 머무르시기에, 하느님과 영혼,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어디에서나 그분을 뵈옵고,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이 빛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쓰시며,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지상에서의 천국을 찾으십니다. 성녀가 말씀하시기를 가르멜 수녀는 가르멜 산의 침묵과 고독, 모든 것을 통해 계속되는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이미 천국에서처럼, 하느님만으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가르멜에서 5년 3개월간의 짧은 수도 생활 후, 26세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에디슨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께 맡겼으며 자신의 소중한 체험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나의 사명은, 단순하고도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영혼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을 그들 안에 새기시어 그들을 차츰 변화시키실 수 있는 내적 침묵을 지킬 수 있도록, 영혼들을 내적 잠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보다 자신에게서 이탈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뜻에 집착하기보다 포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생명 또한 쉽게 내어놓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들어서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목격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 개인의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순수한 은총으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가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는 책에서 한 말처럼 “우리는 죽음 속에서 하느님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희망합니다. 끝이 있는 삶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삶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음으로써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게 되며, 전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